

완도군, 저온·폭설 선제적 대응 나선다

전북 양식장 돌발 저수온 상시 모니터링 실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장치 설치 및 점검도

완도군이 겨울철 저온·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상 예보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10년 간 겨울철 고온, 저온, 가뭄, 폭설 등을 일으키는 기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올 겨울 저온·폭설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 내용은 광주지방기상청과 검토·보완하였고, 11월에는 '완도군 분야별 저온·폭설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였다. 저온·폭설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북 양식장(해상·육상) 등의 돌발 저수온 상시 모니터링 실시, 조기 출하, 사육 밀도 조절, 사육 수심 관

리, 히트 펌프 활용 등을 추진하며, 겨울철 재해 대비 상황 근무 조를 편성·운영하고, 돌발 기상 때 사전조치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장치 설치 및 점검, 지역아동센터 등 통한 결식아동 방지, 취약계층 대상자 현행화 및 특별 관리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 등과 방치 팩 설치, 장기간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 점검 등을 위해 비상대책반 운영 및 이장단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한다. 맥류, 과수, 가을배추·무, 월동 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파종 후 수분 공급, 짚이나 퇴비, 건조 등 피복 방안 현장 지도, 피해 발생 시 상황관리 및 신속한 복구 계획도 마련하였다. 수목 동해 방지를 위해 주요 가로수 동해 방지제 살포 및 유기물을 공급하고 제설 과정에서 염화칼슘 피해 방지용 가림 막을 설치하고자 한다. 박은재 환경산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지역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보다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안전 해남, CCTV통합관제로 지킨다

해남군, 365 통합관제센터 운영 군민안전지킴이 역할 특출

"지난 11월 8일 17시경 해남읍 군민광장 도로변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제를 하던 관제요원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서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 곧바로 경찰과 119구급대에서 출동했고, 응급처치 후 이송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해남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군민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특출히 해내고 있다. 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21명이 CCTV 1,237대를 1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올해 110여건의 관제탐지를 실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포착되면 112, 119 상황실에 알리고 영상제공 및 지속적인 관제를 통해 동선파악, 상황전달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고와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경로추적, 범인검거, 범죄 및 사고 확산 예방, 치매어르신 및 청소년 등 가출자 실종 예방,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의식불명 등 위기에 처한 위급환자 구조, 사건사고현장 증거 제공 등에 580여건의 영상을 제공해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안전도시 해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 7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재난, 방범,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관내 구석구석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459대였던 CCTV를 현재 1,237대까지 늘렸으며 노후된 도로 및 마을방범용

CCTV 412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고품질 영상으로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에도 안전사고 지대를 중심으로 120개소, 36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12억의 사업비를 확보, 내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경찰서, 소방서 등 사건사고 발생시 주변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경찰, 소방관 등이 즉각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주요 연계서비스는 112 출동지원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안전 상황 지원, 사회적 지원으로 사고와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에 해남군 통합관제센터가 운영·관리하는 CCTV 영상을 전송·연계해 기관간 유기적 대응으로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도시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령관 해남군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시안전망을 한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군민 체감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 스마트 안전도시 해남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본부

"맛이 살아야 강진이 산다"

하반기 강진맛집 육성 컨설팅 시사회 및 최종보고회

맛의 1번지 강진군은 지난 14일 군수를 비롯한 컨설팅 참여음식점 대표, 여성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강진 맛집 육성사업 컨설팅 시사회 및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식탁 간 가림막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제4차 강진 맛집 육성 컨설팅에는 8개 음식점이 참여했다. 그간 5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받은 결과물인 맛, 상처 치유에 대한 시식 및 전시 자리로 마

련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8개 음식점은 강진읍의 착한돼지(애호박짜개), 황칠품은 닭(황칠춘닭코스요리), 으름식당(장어볶음), 조경희아구찜(닭곰탕), 오뚜기식당(청국장쌈밥), 무지개식당(돼지불고기), 산채골(도시락), 강진작한 한우명품관(애호박짜개)이다. 상처 치유 전 시 및 시식 코너를 마련하고 시식 평가를 진행했다. 착한돼지 김미성 대표는 "컨설팅을 계기로 음식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강진 대표 맛집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맛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군수 "강진에 가면 한정식만 아니라 단골 요리도 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영업주의

몫이다. 앞으로도 컨설팅에 관내의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 강진 맛집이 강진 관광을 이끄는 선도적인 주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 전국 우수기관 표창...국비 2억 확보

장흥군이 농촌진흥청 주관 2020년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에서 '교육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실습과 조작법 및 안전교육을 연간 총 24회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 실적으로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1265대 1774일에 4149만원에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올해는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관산읍 외동리)를 신축하는 등 농업인들에 농업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농업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 받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비 2억원(국비)을 확보했다. 기획취재본부

진도군, 진도읍 남문로 상권 활성화 시작

5년간 60억 원 투입

진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도읍 남문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6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군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인 진도읍 남문로 일원 상가를 대상으로 상권한계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역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는 거리 정비와 기반공사, 상

설시장 편의시설 개선, 아리단길 조성 등에 지원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 브랜딩, 프리마켓 운영, 핵심포육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역량사업은 상인 조직 운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진도군과 상인회, 지역전문가 등이 협력해 진도읍 도심 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며 "현재 추진중인 진도읍의 다양한 개발 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활기가 넘치고 특색있는 상권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